▌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2호 [2010. 12] : 61～94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

노 용 석**
(Noh, Yong-Seok)

〈Abstract〉

Transitional Justice and Exhumations in Latin Americ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transitional justice and exhumations of Latin America. Most of the features of the exhumations in Latin America are that exhumations were conducted by special scientific excavation teams.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ve special excavating team; for example EAAF in Argentina, EPAF in Peru, FAFG in Guatemala. They excavated human bones which relate to genocide or disappearance, and found important materials that make solve the problems of past. It were the first exhumations which conducted by scientific methods in the world. This essay also reviews three different exhumation cases in Latin America, Argentina, El Salvador, and Guatemala. Three cases have their own special meaning. In Argentina, approximately 500 people disappeared in 1975, shortly before the beginning of a new military dictatorship. EAAF started working on recovering the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62-A00003), 이 논문은 2010년 8월 2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E-mail: anth99@hanmail.net

remains of disappeared persons in 1984, and has been able to find approximately 1,000 remains. EAAF have also started exhumation since 1992 in El Salvador. EAAF has been able to find approximately 150 remains in El Mozote, El Salvador. In Guatemala, an estimated 200,000 people disappeared from 1960 to 1996, and approximately 600 rural indigenous villages were annihilated in large scale massacres. FAFG began excavating in 1992, and have been recovered 4,424 remains. In these countries, human bones excavated by special teams were used in the trails against the junta members and other high ranking officers.

[Key Words: Transitional Justice/ Exhumation/ Truth Commission/ Genocide]
[주제어: 과거청산/ 유해 발굴/ 진실위원회/ 민간인 학살]

Ⅰ. 머리말

15세기 지리상의 발견은 인류의 총체적 생활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의 각 국가들은 민족국가(nation-state)의 틀을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자신들의 부와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다투어 식민지 개발에 몰두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대륙은 유럽 식민지 개척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은 순식간에 열강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배 역사는 이후 원주민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변동시키며 독특한 문화적 구조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진정한 문화적 정체성은 단

순히 식민 지배를 통해서만 형성되었다고 언급할 수 없다. 오히려 라틴 아메리카 근현대의 근본적인 사회정체성은 19세기 이후 근대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쿠데타와 혁명, 폭력, 학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04년 아이티(Haiti)가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 국가를 형성한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근대국민국가 형성(nation-building)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초반 이후 독립을 이루어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한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독재정치와 군사쿠데타(military coups)에 의한 격동의 정치적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19세기 초반 이후부터 라틴 아메리카 각 국의 정치에 등장한 군사쿠데타는 무려 250여 차례에 달하였으며, 칠레(1973-1990)와 브라질(1964-1985)의 경우에는 약 20여 년 동안 군부에 의한 통치기간이 이어졌다(Vanden, H. E. & Prevost, G., 2009: 186).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1930년부터 1976년까지 모두 아홉 번의 군사정권과 민선정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Feitlowitz, 1998: 5), 이렇게 군사정권과 민선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많은 폭력과 테러, 암살 등이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 세계 냉전(cold war)의 영향하에 공산주의와 혁명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도 폭력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코노 수르(Cono Sur) 정부들에 의해 시작된 일명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1]은 약 80,000명의 민간인이 암살되

1) 콘도르 작전은 1975년 11월 25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군사 첩보 기관의 지도자들이 산티아고에서 DINA(Direccion de Inteligencia Nacional, 칠레의 비밀경찰)의 지휘관 마누엘 콘트레라스와 만나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 및 공산주의자를 테러 암살하기 위한 국가 간 연계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첩보국(SIDE),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의 정보기관이 참여하였고 근래에는 미국 CIA가 깊은 연관

거나 행방불명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감옥에 투옥된 인원만도 약 400,000명에 이르렀다.

이렇듯 독재와 폭력, 암살, 실종 등으로 얼룩진 라틴 아메리카의 근현대사는 필연적으로 훗날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켰고,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진실위원회 및 과거청산 관련법 등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982년 가장 먼저 진실위원회가 만들어진 볼리비아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엘살바도르, 페루 등에서 진실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목에서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청산과정에서 실시된 유해 발굴의 주요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처럼 과거청산 가운데서도 유해 발굴 사례만을 특화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유해 발굴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기술하고, '비참한 죽음'(tragic death)의 상징인 유해가 발굴되어 어떤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 사례의 분석이 한국의 유사한 사례에 큰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CK)가 발족하여 과거청산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주도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2009년까지 진행된 유해 발굴은 2010년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발굴된 유해의 안장 역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이 글에서 소개할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사례는 비교연구와 검토를 거쳐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와 교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과거청산과 유해 발굴

과거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2]란 과거 특정 국가 정치체제 혹은 전쟁 하에서 저질러진 잔혹 행위 및 인권유린들을 새로운 체제 하에서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 가의 문제를 말한다(이재승 2002: 47, Roht-Arriaza, N., 2006: 1). 20세기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과 폭력, 지역분쟁, 독재국가의 출현, 인종분쟁 등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다. 이러한 분쟁들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탄압과 고문, 불법 감금, 대규모 민간인 학살, 테러 및 암살 등의 잔혹행위를 통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을 겪었던 많은 국가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후 당시의 국가폭력이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청산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청산의 범주는 단순히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배상이라는 회복적인 측면을 떠나 인권유린 등에 대한 재발

2) '이행기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이재승(2002: 47-74), Naomi Roht-Arriaza & Javier Mariezcurrena(2006: 1-17), Jon Elster(2004: 1-3), Ruti G. Teitel(2000: 3-9)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이행기 정의는 과거 특정체제 즉, 군사정권 및 독재시기의 아픈 과거를 진실규명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과거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위령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는 주로 서구 및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국가들이 행한 '과거청산'을 가리키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거청산(purge of the past)'이라는 단어와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방지 교육과 더불어 기념관, 박물관 등의 건립과 같은 위령사업의 실시, 억압적 통제기구였던 경찰 및 법원의 구조조정,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거청산이 실시되는 공간의 범위는 개인 및 가족으로부터 시작해 공동체, 지역, 나아가 국가 및 초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거청산 대상이 국가폭력 및 인종 학살 등에 해당하므로 청산의 주체 역시 국가에 의한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초국가적 과거청산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 전범과 유대인 학살 관여자에 대해 실시된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학살 및 실종, 독재정치로 인한 인권유린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청산을 실시한 대표적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르완다, 한국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드물지만 지역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 및 학살을 자체적으로 청산하고자 시도한 경우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청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사)독재정권 혹은 전체주의 정권이 몰락한 이후 '특별법정(special court)'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반인륜적 범죄 행위 및 국가범죄, 잔혹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별법정의 설치는 해당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행 과정에 있는 국가들이 자력으로 법정을 만들지 못할 경우 국제법정이 설립되기도 한다. 특별법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뉘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하여 보스니아 내전 당시 옛 유고 연방에서 자행된 학살, 고문, 강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1993년 설립), 캄보디아 킬링필드(Killing Field) 학살 주역 5인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등을 들 수 있다. 특별법정을 제외한 과거청산의 또 다른 주요 방법으로는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설치하여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엘살바도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에라리온, 필리핀, 르완다, 동티모르, 한국 등에서 운용된 바 있다.

이처럼 과거청산의 규모와 방법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주요 로드맵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과거청산의 주요 로드맵으로는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보상', '화해와 역사화'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진실화해위원회·공주대학교 2009: 13). 우선 과거청산의 1차적 목표는 국가가 과거 '참혹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배상[3]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정치적이며 현실적 선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진실규명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의 결정과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등의 문제는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적 방향과 선택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많다.[4] 또한 이 과정은 모든 과정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므로 과거청산의 본질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법률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본질은 배상의 근본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배상 방식에는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사회복귀(rehabilitation), 만족

3) 일반적으로 '보상'은 국가가 적법한 행위로 국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행위를 말하고, '배상'은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임상혁 2009: 27).

4)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1급 전범으로 기소된 11명은 사형되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과거청산에서 가해자 처벌이 이렇듯 신속하게 진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1983년 라울 알폰신 대통령이 과거 군부독재 기간(1976년 - 1982년)에 대한 청산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1989년과 1991년에 실시된 메넴 대통령의 대사면으로 대부분의 거물급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satisfaction),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진실화해위원회・공주대학교 2009: 10), 이중 가장 좋은 배상 방식으로는 원상회복을 들 수 있다.[5] 이것은 모든 피해 대상의 모습을 폭력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 과거청산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치명적 상해를 당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민간인 학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진실규명과 유가족 배・보상 이외에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이들의 영적 존재에 상징적인 원상회복을 이루기 위해 각종 의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원혼을 국가의례 차원의 '제사'를 통해 위로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흔히 '기념 혹은 위령(commemorative and consolation)'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해 발굴은 진상규명이라는 과거청산의 제1차적 범주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과거청산의 결정적 범주인 '기념 혹은 위령'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해 발굴은 역사적 사실(事實)의 실재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외에도 유해 발굴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 공식적 기억에서 제외되었던 '비공식적 담론'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기억'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억회복' 역할은 결과적으로 '죽은 자'와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념과 비참하게 죽음을

5) 원상회복(restitution)은 피해자의 상태를 국가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금전배상(compensation)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루어지며, 사회복귀(rehabilitation)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적 치료, 심리적 치료, 법률적 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만족(satisfaction)은 희생자들이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안도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조치를 말하며,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은 국가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군대 및 법 절차 등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맞이한 영혼을 '정상적 궤도'로 돌려놓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유해 발굴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찾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다 큰 범위에서 보자면 암울했던 한 시대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종의 '의례'(rite)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Ⅲ. 라틴 아메리카 과거청산 사례와 유해 발굴

이 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유해 발굴 사례 중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위 3개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문 기관에 의한 유해 발굴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과학적 유해 발굴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1980년 초반부터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유해 발굴 전문기관을 발족했으며, 이후 라틴 아메리카 주변국의 유해 발굴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아르헨티나 유해 발굴 기관인 EAAF의 창설과 활동에 대해 기술한 후 이들이 영향을 미친 대표적 국가인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유해 발굴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아르헨티나

1) '더러운 전쟁'과 과거청산

1976년 3월, 호르헤 비델라 장군(General Jorge Videla)을 위시한 아르헨티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아르헨티나 군사통치위원회(Junta Militar)는 이사벨 페론(Isabel Perón)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내고 이른바 '국가 재건 과정'(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이라

는 미명하에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철권통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일명 '더러운 전쟁(dirty war)'이라 일컫는다. '더러운 전쟁' 기간인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의 철권통치에 의해 약 10,000명 이상의 실종자(desaparecidos)[6]와 수 천 명의 국외 망명자가 발생하였다(Dinah L. Shelton 2005: 65). 실종자들의 대부분은 소위 '아르헨티나 식 생활양식'인 카톨릭 및 반공주의적 정의 기준에 벗어난 이들이거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군부는 이들이 '국가재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전복을 꾀하는 불순분자'였다는 이유로 처단하였다(박구병 2005: 61).[7]

그러나 1982년 말비나스 전쟁 이후 집권한 민선 알폰신(Raúl Alfonsín) 대통령은 1984년 '더러운 전쟁' 시기 자행된 범죄 행위를 밝히고 실종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이하 CONADEP)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CONADEP는 9개월간의 조사활동 끝에 1984년 9월, "Nunca Más"라고 명명된 진상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군사통치위원회 집권 동안 약 8,960명의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이들이 어떤 경로로 납치되어 희생되었는가를 수록하고 있다.

"눈까 마스"에 의하면 실종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비슷한 양상

---

6) "눈까 마스"(Nunca Más ; never again)에서는 실종자의 수를 약 8,960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실종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여러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는 실종자의 수가 약 30,000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7) "눈까 마스"에 의하면, 실종되거나 구금된 후 풀려난 사람들의 직업은 노동자(30.2%)와 학생(21%), 사무원(17.9%), 전문직(10.7%) 등으로서 빈민촌의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활동한 청년, 봉급인상을 위해 투쟁한 기자, 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테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게릴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송기도 역 1988: 15-16, 285).

을 보이고 있다. 먼저 실종자들은 군대 및 비밀경찰에 의해 특정장소에서 납치된 후 '비밀구치소(Clandestine Detention Centers)'[8]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비밀구치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석방되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학살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비행기에 태워진 후 아르헨티나 해상에 떨어져 사망하거나, 살해된 후 무연고자(Ningún Nombre; anonymous persons)로 둔갑해 전국 각지의 공동묘지에 매장되거나 혹은 특정지점에 암매장(clandestine grave) 되었으며, 일부는 총살된 후 외딴 변두리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EAAF 2009: 23).

2) EAAF(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ía Forense)[9]의 설립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사통치위원회의 '더러운 전쟁' 기간부터 라울 알폰신, 카를로스 메넴(Carlos Saúl Menem), 네스토로 키르츠네르(Néstor Carlos Kirchner) 민선정권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에 대한 수없는 회의와 포기, 방해공작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마다 수많은 인권단체 등이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면서 계속적인 과거청산을 독려하였다. 결국 이러한 고난한 투쟁의 결실이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과거청산 의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역사 속에는 '오월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이하 어머니회)와 같은 실종자들의 가족모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어머니회는 '더러운 전쟁' 당시 실종된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으로서, 1979년 8월 22일 발족하였다. 이들은 1977년부터 개별적으로 아르헨

8) '더러운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전역에는 약 340여 개의 비밀구치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Dinah L. Shelton 2005: 379, 송기도 역 1988: 55).

9) 아르헨티나 '법의인류학 팀'(Argentina Forensic Anthropology Team)의 스페인어 약칭이다.

티나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오월광장에서 실종 자녀들을 찾기 위한 시위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조직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어머니회의 요구는 '(자식을) 산 채로 돌려 달라'와 '죄를 범한 자 모두를 처벌하라'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다(박구병 2006: 77). 그러므로 어머니회는 알폰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실종 자녀를 찾겠다는 희망에서부터 사건의 진실규명, '더러운 전쟁'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유해 발굴은 1984년 초 연방 법정 재판관의 명령에 의해 실종자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무연고 묘지에 대한 발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초기 유해 발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유해 발굴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이 부재하여 상당히 '거친'[10] 발굴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발굴은 학살 증거로 사용될 많은 유해가 손실되거나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소수의 법의학자들[11]은 직간접적으로 과거 군사통치위원회의 범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감식결과에 대해 어머니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CONADEP와 오월광장 할머니회는 1984년 초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인권프로그램 의장직을 맡고 있던 에릭 스토버(Eric Stover)에게 유해 발굴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스토버는 법의학 대표단을 구성하여 아르헨

10) 당시 아르헨티나의 대다수 의사들은 유해 발굴 및 분석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발굴은 주로 중장비를 사용하는 일꾼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해들이 발굴과정에서 부러지거나 분실되었고, 개체가 서로 섞여버리는 등의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EAAF 2009: 9).

11)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의학자들은 경찰 혹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티나에 오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대표단은 먼지 쌓인 가방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유해를 보면서, 유해 발굴이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표단은 즉각적인 발굴 중지를 요청하였고, 당시 대표단원 이었던 스노우 박사(Clyde Snow)를 중심으로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체질인류학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발굴을 시도하였다. EAAF는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스노우는 1984년 이후에도 5년 간 아르헨티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EAAF의 주요 구성원들을 교육함과 동시에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유해 발굴 사례

현재 EAAF는 순수 민간단체이자 비영리단체로서 아르헨티나 과거청산에 있어서 유해 발굴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유해를 발굴하여 과거 군사통치위원회 간부 등을 기소하는데 필요한 물적 증거 등을 제출하고 있다. EAAF는 사면법이 통과되어 일체의 기소가 중지되었던 1987년부터 2005년 까지를 제외하면, 1984년부터 1,000여 건 이상의 재판에서 유해 발굴의 결과들을 중요한 증거물로 제출해왔다(EAAF 2009: 23). 이렇듯 발굴의 결과가 재판 및 기소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AAF는 과학적 분석을 위해 조사의 단계를 역사적 연구(historical research), 실종자의 예전 (체질적)특징 수집(collection of antemortem data), 고고학적 발굴(archaeological recovery of evidence), 발굴된 유해의 감식(laboratory analysis) 이라는 단계로 진행하는데, 이 단계들은 폭력이나 학살 현장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다.[12)]

EAAF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더러운 전쟁' 시기 실종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13]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유해 발굴 사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아벨라네다 공동묘지(Avellaneda Cemetery), 일명 '134구역'(sector 134)에 대한 발굴을 꼽을 수 있다. 134구역은 1976년 군사통치위원회 당시 높은 벽과 철문이 만들어진 경찰 통제구역이었다. 이 구역은 1988년 가족의 요구 및 법원의 조사 허가를 바탕으로 총 432㎡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어 1992년 마무리되었다.

EAAF는 134구역에 있는 19개의 대형무덤과 18개의 단일 무덤을 발굴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각 무덤 당 매장된 유해는 10구에서 28구였으며, 거의 모든 유해는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되었다. 감식 결과, 발굴된 유해 중 252구는 남자였으며 71구는 여성이었고, 대부분의 여성 유해들은 어린 나이에 속했다. 또한 발견된 유해의 40%인 135구가 21세부터 35세 사이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유해는 32%인 108구였다. 이와 동시에 EAAF는 유해의 53%인 178구의 머리나 가슴에서 총상흔을 발견했고, 이들의 대부분은 사망당시 50세 이하의 나이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12) 명문화된 발굴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과거청산 과정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유해 발굴은 법의학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스페인 유해 발굴 주도 단체인 '기억을 위한 포럼 전국 연합'(Federación Estatal de Foros por la Memoria)은 다음과 같은 발굴 행동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부터 진행된 한국의 유해 발굴 역시 아래의 행동지침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였다. "a) 유골의 발굴은 매우 정밀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살해당한 사람의 유해를 회수하는 것 외에도(살해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유해 발굴은 고고학자에 의해 수행되고 이끌어져야 한다. b)기록하지 않은 자료 혹은 잘못 분석된 자료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유해의 신원 확인 혹은 소재 파악 등 발굴 결과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발굴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물건은 고고학자에 의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이하 생략)"(진실화해위원회・공주대, 2009: 39).

13) 이러한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실종자 중 2/3 가량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50세 이상의 유해에서는 총상흔이 드물게 발견되었다. 유해와 더불어 소수의 유품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주요 유품으로는 두 사람의 손가락 뼈에서 발굴된 결혼반지와 철제 십자가, 1958년과 1976년에 발행된 동전 세 개 등이 있다. 또한 매장지에서는 희생자들의 사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 변형되거나 부서진 3백 개 이상의 탄환을 발견하였다(EAAF 2007: 23).

또한 아벨라네다 묘지 발굴 당시 134구역의 묘지 대장에는 245명의 매장 대상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실제 발굴을 통해 확인한 유해의 수는 이보다 많은 336구였다. 이것은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상당수의 유해가 134구역의 무연고 분묘에 매장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유해의 대부분이 군사통치위원회 기간 동안 살해된 실종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해 발굴을 수행한 Snow 와 Bihurriet 는 군사통치위원회가 지배하던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의 134구역에서 무연고자의 시체가 급격하게 증가한 통계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무연고자 시체가 자연사한 고령의 남자인 것에 반해, 1976년부터 1983년까지의 무연고자 시체는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많았고, 이들은 집단적으로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해에서 의문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분석하고 있다(Snow, C.C. and Bihurriet 1992).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EAAF의 계속되는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신원이 확인된 5명 모두가 군사통치위원회 기간 동안 실종된 이들이었다(EAAF 2007: 24-26).[14]

EAAF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외 지역에서도 유해 발굴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발굴이 꼬르도바에 위치한 산 비센테(San Vicente) 묘지였다. 꼬르도바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서쪽으로 780km 떨어진 곳

14) EAAF는 2006년까지 모두 22명의 실종자 신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였다(EAAF 2007: 24).

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로서, 군사통치위원회 당시 제3군단(the Third Army)에 의해 통제된 곳이다. 당시 제3군단은 꼬르도바를 비롯해 산 루이스(San Luis), 멘도사(Mendoza), 산 후안(San Juan), 산티아고 에스테로(Santiago Estero) 등 800,000㎢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라 뻬를라(La Perla)[15]와 깜뽀 라 리베라(Campo La Ribera)와 같은 거대한 비밀구치소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꼬르도바 유해 발굴은 2002년부터 기획되었는데, 이 발굴에는 EAAF 이외에도 초기 조사부터 아르헨티나 역사복원협회(ARHISTA; Association for the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gentina)[16]의 조사원들과 꼬르도바 인류학 박물관(Córodoba Museum of Anthropology)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산 비센테 묘지에 실종자들이 묻혀 있으리라는 정보는 과거 묘지 관리인들의 증언과 무연고자 시신 공시장 등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17] 이 가운데 일부 유해는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1976년과 1977년 두 해에 걸쳐 수 백 구의 유해들이 산 비센테 묘지에 매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AAF는 이러한 정황에 기반하여 2002년 말부터 산 비센테 묘지 C구역의 발굴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EAAF는 91구의 유해와 수많은 부분유해들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층에서 발굴하였다. 유해들이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굴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매장 시기는 상이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C구역에서 남쪽으로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무덤을 발굴하였는데, 여기에서도 32구의 유해를 수습할

15) 라 뻬를라는 제4항공 정찰대가 활동하고 있는 까를로스 빠스(Carlos Paz)로 가는 국도 20번 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군사 쿠데타 이후부터 1979년까지 약 2,200명 이상이 이곳을 거쳐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석방도 이곳에서 계획된 후 지시되었고, 다른 지역의 비밀구치소와의 관계도 이곳에서 조정되었다(송기도 역 1988: 123).

16) 꼬르도바 지역의 인권 단체임

17) 무연고자 시신 공시장에는 시체들이 길거리에서 발견된 무연고자이거나 군대와 맞서 싸우다 죽은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수 있었다. EAAF는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 중 약 30% 가량이 1975년 말과 1976년 군사통치위원회 시기 동안 발생한 실종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EAAF 2002: 45-49, 2007: 41). 꼬르도바 유해 발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었고, 모두 300구 이상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다. 발굴된 유해는 꼬르도바 법의학 센터에서 깨끗하게 세척된 후 감식에 들어갔으며, 2006년까지 모두 10구에 대한 신원확인을 종결하고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주었다.

이외에도 EAAF는 까따마르까 외곽 공동묘지(Catamarca, 2005년, 4구 발굴)와 짜코의 Francisco Solano 묘지(Chaco, 2005년; 2006년, 3구 발굴), 꼬리엔떼스의 Empedrado 묘지(Corrientes, 2006년, 4구 발굴), 엔트레 리오스 지방(Entre Ríos, 2006년, 유해 발견되지 않음), 포르모사 지방의 Virgin of Itatí 묘지(Formasa, 2007년), 산타페(Santa Fe) 의 로사리오 시 Lorenzo 묘지(Rosario, 2004년, 3구 발굴), 투쿠만 지방(Tucumán, 2006년, 25구(추정) 발굴) 등에서 발굴을 진행하였다(EAAF, 2007: 38-49).

2. 엘살바도르

1) 과거청산의 경과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는 19세기 중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후 잦은 군사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안을 겪어야 했다. 특히 1979년 10월에는 극우 쿠데타의 발생으로 인한 좌익세력의 불안과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봉기에 따른 희망이 어우러져 FMLN(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FMLN은 결성된 후 즉각 정부 전복을 위한 반군으로 확장되어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수도 산살바도르를

공격하는 등 무장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FMLN의 기세도 누그러졌으며, 결정적으로 1989년 내전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크리스티아니가 엘살바도르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결국 정부와 반군 FMLN은 1991년 4월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고, 협정 사항의 하나로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La Comision de la Verdad para El Salvador)가 유엔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된 내전 기간의 각종 인권침해 및 학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위원들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양측의 합의를 거쳐 임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신망 받는 외국의 정치, 법조, 학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1993년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진상을 드러내는 보고서(광기로부터 희망으로: De la locura a la esperanza)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총 40여 명의 인권침해 책임자 신원이 공개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 내전 기간 동안 5백만 명의 인구 중 약 7만 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특히 마르티 민족해방전선과 연계된 농촌마을 주민들이 학살의 주요 대상이었다.

2) 엘살바도르 유해 발굴 사례[18)]

엘살바도르의 내전(1980-1992)기간 동안 가장 큰 민간인 학살은 엘 모조트(El Mozote)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1981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엘살바도르 군대는 북동부 모라잔(Morazan) 지역에서 일명 '구출 작전'(Operation Rescue)을 실시하였는데, 이 작전의 목표는 FMLN 반군 게릴라 소탕과 게릴라 지지자들의 제거였다. 이 작전의 최선두에 섰던 것은 미국에서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아뜰라카뜰(Atlacatl) 대대였다. 이 부대는

18) 엘살바도르의 유해 발굴 사례는 전체적으로 Danner, M(2004: 235-278)의 글을 참조하였음.

1981년 12월 9일 엘 모조트 마을에 도착해 마을주민들을 학살하고 집과 농토를 불태웠다. 그리고 이들은 며칠 후 인근 5개 마을에서도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엘 모조트 학살 소식을 들은 주변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도망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야간에 마을로 들어와 피학살자들의 시체를 공동묘지에 매장하기도 하였다.[19]

엘 모조트 학살은 즉각 엘살바도르와 미국의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1982년 1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 보도되기 전까지 대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이 대외에 불거진 후 엘 모조트 사건은 미국 의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의회에서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재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 미국과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 모조트에서의 군사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엘살바도르 군대와 FMLN 사이의 충돌일 뿐이지 '학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로도 엘살바도르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계속 되었다.

미국과 엘살바도르 정부의 학살 부인 발표 이후 이 사건은 점차 대중들의 인식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1989년 산 살바드로의 인권기구인 Tutela Legal 에 의해 학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조사에서 약 8백 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으며 학살인원 중 약 40%가 10세 이하의 어린이인 것을 확인하였다(Shelton, Dinah. L., 2005: 378). 1990년 10월, Tutela Legal 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엘 모조트의 유해 발굴을 위해 EAAF에 법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1991년 EAAF는 사전조사를 위해 엘살바도르로 갔으

19) 피난민의 일부는 생존을 위해 온두라스 국경을 넘어 유엔 난민캠프로 갔으며, 일부는 FMLN에 합류하거나 엘살바도르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외지의 주민들은 생존자들이 온두라스로부터 귀향하기 시작한 1989년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엘 모조트는 학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나 유해 발굴 허가를 거부한 판사에 의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1992년 초 엘살바도르 정부와 FMLN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Tutela Legal는 다시 EAAF에 조사 의뢰를 하였고, EAAF는 3개월 동안 사전 역학 조사를 수행하거나 준비하였는데, 이때 EAAF는 일부 무덤의 위치와 희생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유해 발굴 거부가 있었지만 1992년 가을 엘살바드로 유엔 진실위원회는 유해 발굴을 결정하였고 EAAF를 기술 고문으로 선정하였다(ibid: 379).

엘 모조트의 유해 발굴은 1992년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발굴은 주로 '제1구역'(Site No. 1)[20]에서 진행되었으며, 유해는 3개의 지층 중 가장 아래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발굴팀은 이 구역에서 모두 143구의 유해를 수습하였으며, 이중 136구는 평균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었다. 또한 성인 7인의 연령은 21세에서 40세로 추정되며 6명이 여성이었다.[21] 또한 현장에서는 학살에 사용된 257개의 탄두와 탄피 및 244개의 탄창 카트리지가 발굴되었고, 인형, 장난감 자동차, 십자가, 동전, 메달 등의 유품도 함께 수습되었다(Danner, 1994: 235 - 256). 증거물들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져 고고학자와 총기 전문가들의 정밀감식을 받았다. 총기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탄창(탄약통)이 한 개를 제외하고 5.56 구경 탄창이었고 미국에서 제작한 M16 자동소총이 발사된 것으로 결론을 내

20) 제1구역은 흙벽으로 만든 작은 집(4.63 ㅧ 6.94미터)으로서 마을 교회 옆에 세워져 있었다. 발굴 당시 집의 벽은 무너져 있었고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21) 발굴된 유해는 산 살바도르의 조사실로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위해 옮겨졌는데, 이때 새로운 법의인류학자와 병리학자, 방사선학자 등이 미국으로부터 결합하였다. 골상학과 치아 검사를 통해 볼 때 어린이들의 연령대는 신생아로부터 12세까지였으며, 평균 나이는 6.8세였다. 또한 성인 7명을 포함하여 모든 사망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의 총상에 의한 트라우마를 보여주고 있었다(Shelton, Dinah. L., 2005: 379).

렸다. 또한 모든 탄창(탄약통) 케이스에는 'Lake City Arms Plant' 도장이 새겨져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증거로 볼 때,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부대는 위 형태의 무기를 소지한 엘살바도르 군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유해 발굴의 결과는 유엔 진실위원회가 내전 당시 엘 모조트와 인근 마을들에서 약 5백 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유해 발굴과 유엔 진실위원회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전까지 엘살바도르에서 학살이 없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철회하였다.

1992년 EAAF가 엘 모조트에서 발굴을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 엘 모조트와 인근 5개 마을에는 발굴되지 않은 많은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엔 진실위원회는 1993년 3월 이러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엘 모조트를 포함한 전쟁기기 인권 침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유엔에서 이와 같은 성명이 발표되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쟁 시기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기소권과 엘 모조트 혹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의 어떠한 추가조사도 무효화 할 수 있는 사면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면법에도 불구하고 엘 모조트 학살에 피해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계속적인 유해 발굴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바뀐 정치 환경에 힘입어 사법부는 유해 발굴 재개 탄원서를 허가하였다. 2004년 EAAF는 엘 모조트와 인근 마을에서의 계속적인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는 2008년까지 이어졌다.

3.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1954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억압정치가 계속 이어졌으며, 이에 대항하기 이해 1960년대에 4개의 반정부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들

은 1963년의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시작으로 1982년에는 4개 반군단체가 연합하여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nion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반정부 게릴라 활동에 나섰으며 1990년대까지 과테말라를 내전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러나 1991년 엘리아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반군과 정부 사이의 평화협상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1994년 인권문제, 난민문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22]

과테말라는 1994년 정부와 혁명연합군(URNG)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역사진실위원회'(Comision para de Esclarecimiento Historico: 이하 CEH)를 구성하여 34년 내전 기간 동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살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이 위원회는 18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1997년 '침묵의 기억'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재까지 여러 보고서 등을 통해 볼 때 과테말라의 '라 비올렌시아'(La Violencia) 기간 동안 440개 마을이 과테말라 군에 의해 불태워 없어져 500,000명의 집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150,000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100,000명에서 150,000명 사이의 인구가 죽거나 실종되었다. 또한 CEH는 626개 마을에서 약 200,000명의 이르는 인구가 학살되었는데 이중 약 83%는 마야족이었고, 학살의 책임소재에 있어서 과테말라 정부군에게 93%의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였다(Lerner, S[23]., 2009: 254). 특히 보고서에서도 기술하고 있지만 과테말라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마야족이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 이후 화해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조치 및 토착주민 보호를 위한 개혁조치들이 본

22) 1996년 과테말라 정부와 URNG는 영구 평화협상을 체결하였다.

23) 살로몬 레르너(Sallamon Lerner Febres)는 전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페루 카톨릭대학교의 전직 총장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않다.

과테말라 국민들은 내전 기간 동안의 폭력적 기간을 '라 비올렌시아'라는 용어로 개념화 하고 있다.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인데, 이전까지 과테말라에서는 국민들이 내전 기간의 폭력기간을 '라 시뚜아시온'(La Situacion)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Sanford(2003: 14-15)에 의하면, 1994년에 이르러 '라 시뚜아시온'에서 '라 비올렌시아'로 용어가 바뀐 것은 과테말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4년은 반군과 정부와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시기로서, 과테말라 국민들이 참고 침묵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오던 자신들의 내면을 1994년 이후 '라 비올렌시아'라는 적극적 단어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적 담론이 과거 폭력적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 및 정치활동 참여로 청산의 길을 걷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의 유해 발굴은 위의 정치적 상황과 맥을 같이하여 실시되었다. 1990년과 1991년에 이르러 1980년대 초 '초토화공세'에 따른 마야 부족민의 학살 소식이 알려지고 이들의 시신이 묻힌 비밀묘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제보들이 잇따랐다. 이에 1991년, 생존자들은 아르헨티나 EAAF를 구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던 스노우 박사를 면담하면서 유해 발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후 과테말라에서 첫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테말라 법의인류학팀'인 EAFG(Equipo de Anthropologia Forense de Guatemala)가 결성되었다.

EAFG는 1992년 7월 엘 끼체(El Quiche) 지역의 산 호세 빠쵸 레모아(San Jose Pacho Lemoa)에서 첫 발굴을 실시하였다. 이후 1997년 EAFG는 재단(foundation)으로 전환하였고, CEH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네 개 지역의 발굴을 실시하는 등 1997년 중반에만 모두 29개의 비밀 매장지를 발굴하여 431구의 유해를 수습하였고 이중 89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완료하였다(Hoepker, 1998: 40). 또한 EAFG는 과거 학살이 이루어졌던 군부대 내부에서 조사 중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과거 인권 침해 및 고문이 이루어졌던 꼬마라빠(Comalapa),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지역의 전(前) 군사기지에 대한 발굴을 실시하여 총 220구의 유해를 수습하였고, 라비날(Rabinal)과 바자 베라빠즈(Baja Verapaz)에서도 74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과거청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1997년까지 내전기간 동안의 민간인 학살을 전면 부인하던 과테말라 정부는 EAFG의 유해 발굴이 실시된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하였다. 결국 CEH의 최종보고서에서 민간인 학살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93%라는 것을 입증시키는데 유해 발굴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해 발굴은 검찰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2002년 2월 21일에는 발굴 관계자들에게 '발굴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기도 하였다.[24] 한편 EAFG는 2004년 10월까지 총 349개소의 비밀 유해 매장지를 조사하여 2,982개체(set)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Ⅳ.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의 특징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단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의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실시한 유해 발굴과

24) 당시 EAFG 관계자들은 24시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의 비교 검토를 통해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라틴 아메리카의 유해 발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라틴 아메리카의 유해 발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과거청산 과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선도적인 유해 발굴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렇듯 선도적인 유해 발굴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과거청산이 절실했고, 이러한 청산 작업이 학살 및 실종이 발생한 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5]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사례는 과거청산이 절실하였으나, 과거청산의 구체적 실행은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시작되었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여 년이 지난 뒤였다. 이러한 시기상의 과거청산 지연은 결국 유해 발굴에 있어서도 매장지의 훼손 및 주요 증언자의 사망 등을 초래하여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한 정보 및 문서 등을 토대로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굴의 사회적 파장이 다른 어느 곳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이 선도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발굴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유해 발굴 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나타나고 있다. 상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 페루는 자국 내 전문적인 유해 발굴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유해 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유해 발굴 기관의 초국가적 활동은 LIID(The Latin American

25) 과거청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르완다, 우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99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과거청산을 시도하였다고 볼 때,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Initiativ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Disappeared)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 협력 기구'를 탄생시켰다. 아르헨티나의 EAAF와 과테말라의 FAFG(the Guatemalan Forensic Anthropology Foundation), 그리고 페루의 EPAF는 2007년 과거청산 과정에서 실시되는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LIID를 발족하였다. LIID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유해 발굴을 비롯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족 기초탐문 조사, DNA샘플 채취, 유전자 검사, 연구 인력 교육 등에 대해 기관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LIID, 2009: 18-21).[26]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과거청산이 실시되었지만, 유해 발굴과 같이 국가 간 협력체제가 강력하게 나타난 분야는 드물었다. 이러한 협력의 근본적 원인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식민지로부터 시작해 독립, 내전,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의 폭압 정치 등 일련의 사회정치적 변화들을 거의 비슷하게 겪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인 동질성이 다른 어떤 대륙보다 강하게 형성되었고 언어적 측면에서 강한 일체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다소 특정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과학적'분야라는 인식 역시 협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10년이 지난 4.19혁명 이후부터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지만 발굴의 형태는 과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발굴은 유족과 장의사들에 의해 실시되었고, 발굴된 유해는 과학적으로 분석되기보다는 단지 참혹한 학살의 상징으로만 활용되었다. 다만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부터 실시된 유해 발굴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과학적 유해 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설적인 유해 발굴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27] 한국

26) 유해 발굴의 협력기구로는 2003년 2월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참여하여 만든 ALAF(Latin American Forensic Anthropologists)이라는 단체도 존재한다.

에서 상설적 유해 발굴 기관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발굴이 종료되자 모든 유해 발굴이 중단되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유해 발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어떠한 발굴 작업도 실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유해 발굴 실행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굴 전문 민간 기관을 창설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가 급격히 하락한 한국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의 민간 주도 독자적 유해 발굴 사례는 향후 한국 유해 발굴 장기 로드맵 형성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의 또 다른 특징은 발굴된 유해가 과거청산 과정에서 법원의 증거물로 채택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 발굴은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었지만, 발굴된 유해가 라틴 아메리카처럼 결정적 증거물로 기능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도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2007년부터 유해 발굴이 실시되었으나, 이 발굴은 라틴 아메리카처럼 과거청산에 있어서 결정적 증거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유해 발굴은 주로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의 해원(解寃)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진상규명 차원의 사건조사에서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진상규명 사건조사의 결정적 단서는 주로 공문서의 기록이나 참고인의 증언이었고, 발굴된 유해는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한국의 민간인 학살 과거청산이 60년의 세월이 지나간 시점에 이루어지다보니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28], 유족 역시 피학살

27) 2000년 이후 한국의 유해 발굴은 일부 대학의 박물관 및 고고학 팀들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28)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에서는 모두

된 자신의 가족을 찾기 보다는 전체적인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29] 이외에도 프랑코 독재정권 당시 실종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 역시 발굴의 결과물이 사법부의 증거물이나 기소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Ferrándiz, 2006; 진실화해위원회・공주대 산학협력단, 2009: 36-39)[30]. 이에 반해 라틴 아메리카의 유해 발굴은 집단적 위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개별 신원확인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발굴된 유해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기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해 발굴의 역할은 우수하고 정교한 발굴기관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서, 라틴 아메리카의 전체적인 과거청산 열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Ⅴ. 향후 연구의 전망

라틴 아메리카의 유해 발굴이 과거청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1,617구의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한 구도 없었다.

29) 실제로 한국의 많은 피학살자 유족들은 모든 유해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집단적인 위령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유족들은 기회가 된다면 가족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제주4.3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주 4.3사건 유해 발굴'은 진실화해위원회 발굴과는 달리 신원확인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13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주대 등, 2010).

30) 스페인에도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유해 발굴이 '제2의 학살'이므로 암매장지를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훼손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암매장지가 '역사적 증거물'로 보존되어야 하며, 유해 발굴 대신 암매장지 위에 위령시설(표식이나 기념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errándiz, 2006: 9).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해 평가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유해 발굴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으나, 막상 발굴이 시작되자마자 어머니회는 유해 발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어머니회가 유해 발굴을 거부한 이유는 발굴된 유해를 통해 실종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해 발굴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군부 가해자의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회는 유해 발굴이 자칫 국민들에게 과거청산이 종료되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발굴로 인한 애도의 분위기가 자칫 과거청산 투쟁을 지속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어머니회의 주장은 자신들의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아는 것이지, 유해를 발굴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Bouvard, 1994: 142; 박구병, 2006: 81).

> 유해 발굴은 정부의 또 다른 전략이다. 이것은 자식의 유해를 수습한 어머니들에게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략) 우리는 뼈에 관심이 없다. (중략) 유해 발굴은 정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Beatriz de Rubinstein 증언, Fisher, J., 1989: 129).

유해 발굴에 대한 아르헨티나 어머니회의 입장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종되었던 자식의 유해를 찾아 다시 재매장하는 것이 비록 헛된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정이 자칫 과거청산의 큰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머니회의 입장인 것이다. 이 문제는 유해 발굴을 실종되었던 가족의 시체를 찾아 재매장하는 의례 과정의 일부분으로 특화해 볼 것인가, 아니면 발굴의 의미를 좀 더 확장된 과거청산의

본질 문제로 해석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한국의 유해 발굴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였다. 완전한 과거청산을 위해 유해 발굴을 거부한 채 투쟁하고 있는 어머니회의 결정은 유해 발굴이 단순히 죽은 자의 시체를 땅 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사회현상의 일부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어머니회는 유해 발굴이라는 요소를 통해 아르헨티나 사회에 내재해 있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이야기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회의 주장과 동시에 일부에서는 전문기관에 의해 유해 발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들은 결국 유해 발굴이라는 소재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사회적 정치경제적 특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이든 죽은 자의 몸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 문화권의 총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단순히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 기념의 대상으로 상징되고, 이러한 상징을 통해 문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위 학살 및 실종과 같은 비참한 죽음의 대상을 발굴한다는 것은 정상적 문화질서가 파괴된 구조를 회복한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라틴 아메리카 유해 발굴 연구가 독재정권 및 군사쿠데타로 대표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암흑기'를 치유하기 위한 상징 및 의례적 행동에 대한 고찰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해 발굴 연구는 향후 좀 더 확장된 분석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문화체계 및 종교관, 죽음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결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해 발굴이라는 코드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청산이 실제 민중의 문화적 체계에서는 어떠한 코드로 작동하는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헌익(2003), 「전쟁과 민간신앙 : 탈냉전시대의 월남 조상신과 잡신」, 민족과 문화, 12호, 한양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구병(2005), 「'눈까 마스'와 '침묵협정' 사이 : 심판대에 선 아르헨티나 군부의 '더러운 전쟁'」, 라틴 아메리카 연구, 18권 2호,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

_____(2006),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라틴 아메리카 연구, 19권 2호, 한국라틴아메리카 학회.

이재승(2002), 「이행기의 정의」, 법과 사회, 제22호, 서울: 동성출판사.

임상혁(2009), 「국내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안』,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진실화해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

제주대·(사)제주4.3연구소(2010),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2단계 1차 감식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피해·명예회복 및 화해·위령사업, 재단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2009), 『진실규명 이후 화해·위령 및 재단설립 방안』,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Ⅱ) 자료집.

진실화해위원회(2009), 『세계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2007), 2007 *Annual Report*(covering the period January to December 2006).

Bouvard, M. G. (1994), *Revolutionizing Motherhood: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Danner, Mark.(1994), *The Massacre at El Mozote,* New York: Vintage Books.

Elster, J. (2004), *Closing the books : Transitional Justice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ia Forense(2002), *Informe Mini Annual* 2002.

_____(2006), *Informe Mini Annual* 2006.

Feitlowitz, Marguerite. 1998. *A Lexicon of Terr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errándiz, Francisco(2006), "The Return of Civil War Ghosts - The Ethnography of Exhumations in Contemporary Spain", *Anthropology Today Vol 22, No 3.*

Fisher, J. (1989), *Mothers of the Disappeared,* Cambridge: South End Press.

Hertz, R. (1960),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death'. In *Death and The Right Hand* (authored by R. Hertz and translated by C. Needham). New York: Routledge.

Hoepker, Thomas.(1998). *Return of the Maya-Guatemala, A Tale of Survival-.* Henry Holt and Company Inc.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1984), *Nunca Más,* Buenos Aires: Editorial Universidad de Buenos Aires(실종자 진사조사 국가위원회[1988], 『눈까 마스: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의 실상』, [송기도 역], 서당).

Kwon, H., 2006, *After Massacre :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London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tin American Initiativ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Disappeared.(2009). *Genetics and Human Rights(Argentina Section).*

Payne, L.(2009), 'The Justice Balance : when Transitional Justice Improves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세계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방안 모색 심포지엄 자료집』, 진실화해위원회.

Robben, A. C. G. M.(2000), 'State Terror in the Netherworld: Disappearance and Reburial in Argentina', in *Death, Mourning, and Burial,* Blackwell Publishing.

_____. 'Death and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in *Death, Mourning, and Burial,* Blackwell Publishing.

Roht-Arriaza, N. (2006), 'The new landscape of transitional justice' in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yond Truth versus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aw, M. (2003), War & Genocide, Cambridge: Polity Press.

Shelton, Dinah L.(2005), *Encyclopedia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1.,* Thompson Gale.

Snow, C.C. and Bihurriet, M. J. (1992), "An Epidemiology of Homicide: Ningún Nombre Burials in the Province of Buenos Aires from 1970 to 1984", in T.B. Jabine and R.P. Claude(Eds.) *Human Rights and Statistics: Getting the Record Straight:* University of Pennsylvania.

Sanford, V. (2003), *Buried Secrets -Truth and Human Rights in Guatemal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Teitel, R. G. (2000), *Transi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anden, H. E. & Prevost, G. (2009), *Politics of Lat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일자: 2010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10일